

와신 짬뽕

이 궁금하다면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로비에 개업식에 서나 만날 수 있는 한국기가 펼쳐진다. 전시 제목은 '와신짬뽕'전. 전시장에 들어서면 천정까지 닿는 거대한 젓가락이 설치미술처럼 놓여 있고 관람객이 만나는 첫 그림은 산수화와 어우러진 '짬뽕'이다. 물감, 붓, 책, 화첩, 스케치 작품 등 아카이브 자료를 접시와 도마 위에 펼쳐 놓은, 마치 '주방'처럼 꾸민 코너도 재미있다. '음식산수'를 그려온 하루.K(본명 김형진) 작가 초대전에 맞춤형 컨셉이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매년 한명의 청년 작가를 선정해 기획전을 연다. 올 초대전인 '기묘한 식객 하루 K-와신짬뽕'전(2020년 2월 23일까지)에서는 평면, 입체, 영상, 설치 등 26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회는 흥미롭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가듯 즐기는 재미가 있다.

정통산수화 느낌의 작품 속에 다양한 음식이 들어있다. 국물이 푹푹처럼 쏟아지고, 달걀 후라이가 바위 위에 걸쳐 있기도 하다. 때문이 모든 게 '도시락'에 담기기도 한다. 산수화와 음식이 어우러진 '맛있는 산수'로 알려진 하루.K 작품은 한번 보면 잊기 어렵다. 이런 작가에게 특이하기도 하지만, 특이하기도 하다.

"조금은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신장개업' 컨셉으로 전시회를 꾸몄어요. '와신'은 '바꾸며 조금씩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제 정체성인 음식산수를 부정할 순 없지만 늘 변화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동양화 전통은 지켜가되, 재료나 소재면에서 실험을 통해 관람객들이 좀 더 재미있게 동양화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 작업을 보고 행복해지고 유쾌해지면 좋겠어요. 개그적 느낌도 넣어 더 재미있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웃음).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뽕'하고 웃을 수 있도록요."

홍익대 동양화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활동하던 그는 서른 즈음인 2009년 광주로 내려왔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내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다. 이때 '하루의 삶'의 태도가 한달의 삶, 일년, 일생의 삶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 '성실하게 살자'는 의미로 하루 K라는 예명을 지었다. 운 좋게 의재미술관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하게 된 그는 이때부터 인물과 나무 그리기 등 기초부터 '내 작품을 위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동양화 전공자들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제 포레의 대중들은 동양화, 특히 산수화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산수화를 그려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동양화가들이 추구하는 '이상향'은 '정신'에 무게를 두죠. 하지만 '정신'만으론 살 수 없고 '물질'을 간과할 수는 없어요. 현대적인 이상향은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라고 봤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에서 나온 게 바로 음식이에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고,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특성이 정신과 대비되는 '물질'이라는 속성에 부합된다고 생각했죠."

첫 작품은 2012년 향토음식박물관 기획전에서 내놓은 '식탁 위 그릇 위에 산을 올려 놓은' 그림이었다. 사람들이 재미있어하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생각했다. "대중이 산수화를 먹기 시작했어."라고. 그는 좀 더 '다양한 상차림'을 내놓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맛있는 산수' 시리즈가 시작됐다.

"산수와 음식이 한 화면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통해 재밌고 이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데 어느 순간 산수가 가진 느낌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 복제를 시작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도 생겼어요. 이때 곳곳으로 스케치를 떠나 돌고구를 찾았죠. 이때 채집한 소재들을 새롭게 '편집'했고, 도시락이 등장하는 '편집된 산수' 시리즈가 시작됐어요."

대규모 초대전을 준비한 올해는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다. 평면 작품을 입체화되고, 사진이 되고, 조각이 됐다. 장지에 수묵채색으로 작업하던 데서 벗어나 유화 작업도 진행했다. 9m 대작 'rainbow moodeung mountain'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무등산'의 의미를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 산수에 담긴 정신을 구현할 수 있



'편집된 산수'

다면 재료는 상관하지 않는 편이라 강하고 화려한 색깔을 쓰고 싶어 유화물감을 쓰고, 어릴 적 누구 집이나 있었던 '핑크 담요'로 무등산을 표현했다. 또 작품의 이미지를 물질화, 입체화시키는 작업도 시작했다. 그밖에 동양화의 정물화를 재해석한 '그림 속 그림' 시리즈, 지역 가수 '물소'의 랩·음악과 콜라보작업인 영상물도 전시한다.

"작업에 등장하는 나무와 바위 등 산수화 소재를 3D프린터로 출력해 입체화시키고 나무, 사람 등 미니언처를 배치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이 새로운 공간들을 사진으로 찍으면 재미있겠다 싶어 사진 촬영을 했고,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인기 높은 '짬'처럼 제작했죠. 새롭게 시작한 작업들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니 "소소한 것들에 대한 미묘한 감정을 잘 만들어내는 동료 작가"로 이번 전시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하고, 응원한 아내 임현채 작가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지난 2013년 산세제미술제 대상을 수상했고, 임작가는 올해 우수상을 받았다. 개막식은 20일 오후 5시 열리며 오후 3시부터는 미술평론가 양초용씨와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작가 하루.K 전시회로

청년작가 초대전 '기묘한 식객_하루.K' 내년 2월23일까지 시립미술관 평면·영상·입체·설치 등 26점 전시... 20일 개막식·작가와와의 만남 "산수와 음식 결합시킨 유쾌한 작품으로 이상적 세계 보여주고 싶었죠"



하정웅미술관에서 초대전을 진행중인 하루.K작가가 주방처럼 꾸며진아카이브 공간에서 포즈를 취했다.

'rainbow moodeung mountain'

'광주폴리 10년, 미래의 길을 묻다' 광주비엔날레, 19일 비전 워크숍

10여 년 동안 추진됐던 광주폴리를 점검하고 방향 및 비전을 설정해보는 워크숍이 열린다. (재)광주비엔날레는 19일 오후 2시 광주비엔날레 3층 컨퍼런스홀에서 '광주폴리 10년, 미래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광주폴리 방향 및 비전 설정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광주폴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획진과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단, 광주폴리시민협의회, 광주폴리 사업방향 및 비전 설정 전문가 TF, 시민사회 등을 초청해 지난 광주폴리를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방향 및 비전 설정을 위해 기획됐다.

이날 2011년 광주폴리를 태동시킨 승효상 광주폴리 I 감독(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천의영 광주폴리 III 감독(경기도 건축학과 교수), 유우상 광주폴리 III 큐레이터(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조용준 제 1차 광주폴리 운영평가단 단장(조선대 명예교수), 류재현 광주폴리 사업방향 및 비전설정 전문가 TF 위원(전남대학교 인문대학장), 이기훈 제 3기 광주폴리시민협의회 위원(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등이 발제 및 패널로 참석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칸타타 오월'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

달빛오디세이, 20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공연 '칸타타 오월'이 20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창작그룹 달빛오디세이가 주최·주관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주시, 광주문화

재단, 세상을 이어가는 끈이든 후원한다.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공연은 레퀴엠 형식을 빌려 음악의 본질을 담았다. 달빛오디세이 대표이자 작곡가인 김현욱(사진)씨가 작곡한 칸타타 총 10곡이 관객과



공연에는 소프라노 박성경, 메조소프라노 정상희, 테너 김진우, 바리톤 김지욱 등이 참여한

만나며 모두 라틴어로 공연된다.

작품은 '안식'으로 시작해 '낙원'으로 마무리한다. 8개의 찬가는 '연민'을 비롯해 '화답', '봉헌', '감사', '축복', '신비', '평화', '경건' 등이다.

다. 또 바이올린 윤성근·이혜영, 비올라 정호균, 첼로 박효은, 피아노 천현주·문수현, 퍼커션 오미정, 오아리트리미 정나란이 연주를 맡아 함께 호흡을 맞춘다. 어린이노래는 윤상호·서정운솔이 부른다.

김 작곡가는 "이번 무대는 합창, 기악, 현악, 중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꾸며진다"며 "꼭 1980년 5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무게감을 담았다"고 말했다. /전은재 기자 ejf621@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